+

"AI시스템 도입 불구 교통약자 배차 지연 여전하다"

광주시의회 시정질문

서용규 "장애인콜택시 대기 4-5시간" 광주시 "우선 배차 도입 검토 등 개선"

광주시가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AI 기반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배차 지 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광주시의회 서용규 의원(더불어민주당·비례 ·사진)은 14일 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 에서 "광주시가 6억4천200만원을 투입해 교통약 자이동지원센터에 AI 기반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이용자들은 최장 4 -5시간까지 대기하는 불편을 겪는 등 민원이 지 속 발생하고 있다"고 지적했다.

이어 서 의원은 "센터는 기존 업체의 잦은 전 산 마비, 일정 지연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 라 2020년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했다"며 "하지 만 AI 알고리즘의 정확도 부족으로 인한 교통 량, 도로 상황, 수요 패턴 등을 실시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수 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"이라고 주장했다.

그는 또 "일반 택시의 평균 대기 시간은 5-15



분이지만 장애인 콜택시인 교 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특장 차 대기 시간은 평균 2시간, 길게는 4-5시간"이라고 비판

서 의원은 "교통약자 수요 가 높은 시간대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령자, 장애인 등의 특수 수요에 맞는 별도의 차량 배차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"며 "센터 내 실시간 문제대응팀을 신설해 시스템 오류나 배차 장애 시 즉각 개입 가능한 운용 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이 밖에도 서 의원은 센터 성과급 제도와 무관 한 운전원 성과급 균등 지급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문제, 권역별 차고제의 효율성 한계, 운전 원 노조 교육으로 인한 배차 지연 문제, 광역 이 동 서비스 수행 한계 등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.

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"바우처 택시는 2022 년 도입 이후 이용자 수가 지난 5월 기준 23% 가 량 증가했으나 대기 시간은 29분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됐다"며 "운전원 교육 문제 등으로 최 장 4-5시간 대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배차 단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강 시장은 또 "성과급 차등제는 올해 상반기 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바우처 택시 예산



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.

〈광주시 제공〉

부족분 9억4천여만원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꼭 담아내겠다"고 약속했다.

이와 관련, 광주시 관계자는 "광주시는 콜 집 중 시간대에 맞춰 차량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실정"이라며 "이용자의 긴 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배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

이 관계자는 "다만 우선 배차제를 실시할 경 우 형평성 문제와 운행 효율 저하 등 여러 문제

가 있어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"며 "운전원 교육 문제는 노사 자율 합의사항으로 시가 개입할 수 없지만 대체 인력 투입 방안, 주말 교육 유도 등 개선점을 찾겠다" 고 덧붙였다. /변은진기자

"30년 넘은 흉물 서진병원 처리방안 시급"

이명노 시의원, 시정질문서 대책 촉구

광주 도심 내 장기 방치 건축물 및 폐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

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(더불어민주당·서구 3·사진)은 14일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"30년 넘게 방치된 서진병원 문제는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"이라고 지적했다.

서진병원은 1982년 서남대학교가 의대 유치를 위해 착공했으나 1989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 단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방치된 대표적인 흥물 건축물이다.

이 의원은 "이 건물은 서진여고, 대광여고 등 학생들의 통학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악취 ·소음·무단 투기 등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"며 "그런데도 광주시 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중재 시도도, 매입 제안



도, 활용 계획도 내놓지 않은

현행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 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

건 충족 시 직권으로 철거 권한을 갖는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.

이 의원은 "광주시가 계속 판단을 미룬다면 이는 시민 안전과 민생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 정"이라며 "서진병원 사태는 광주시의 도시 공 간 정책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

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"서진병원의 경우 토지주와 건축물 낙찰자 간 소송 중으로 오는 8 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"며 "소송 결 과에 따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

채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"고 비판했다.

치법상 시·도지사는 일정 요

가될것"이라고강조했다.

지원하겠다"고 밝혔다.

전남개발공사 "RE100 산단 특별법 환영"

"재생에너지 풍부 전남이 중심지 될 것"

전남개발공사는 14일 "정부가 추진 중인 'REI 00 산업단지 특별법' 제정 계획을 환영한다"고 밝혔다.

전남개발공사는 "전남이 가진 풍부한 재생에 너지 자원과 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대 한민국 RE100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심지 로도약하겠다"고 밝혔다.

전남개발공사는 특별법이 에너지 전환 뿐만 아 니라, 지역균형 발전, 산업구조 혁신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역사적 정책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.

현재 전남개발공사는 나주·고흥·무안·율촌 등 도내 주요 전략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력 수 요예측 기반 업종 배치, 기업 간 공동 전력구매

계약(PPA) 도입, RE100이행가능기업유치전 략을 구체화하고 있다.

대표 사례인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차세대 에너지산업 부지를 중심으로 신안 해상풍력 발 전(총 82GW)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. 기업들이 PPA 계약을 공동 체결해 연간 약 333GWh 규모의 전력을 조 달하게 된다.

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"RE100을 도입 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 적용 가능한 기반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은 국내에서 가장 풍부 한 해상풍력과 태양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최 적지"라며 "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남은 가장 먼 저 실현 가능한 RE100 전략산단 모델을 제시할 수있을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'한센인 지원 강화 조례안' 도의회 상임위 통과

고령화하는 한센인에 대한 지원·관리를 강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전남도의 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.

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'한 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 정안'을 가결했다.

개정안은 한센병 예방·치료, 새 환자 발견·검 진, 교육, 홍보, 사회 복귀, 재활 등 한센인 지원 사업 전반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사업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.

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병용(더불어민주당・ 여수5) 의원은 "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환자 조기 발견과 사회 복귀의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다"며 "예방부터 치료, 재활까지 전남도의 책무를 강화하고 평균 80.6세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한센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"고 /김재정 기자





파나소닉프라자 파나소닉 금호월드점

+

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(임동5거리) 직영서비스센터 062)350-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, 금호월드 1층 139호